

국회의원(강선영) 제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4016
----------	------

발의연월일 : 2024. 9. 13.

발 의 자 : 박성준 의원

찬 성 자 : 169인

주 문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앞에 선서한 대로 헌법을 준수하고, 동법 제25조에 따라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 강선영은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용현의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평화혁명론’ 책의 표지를 손패널로 들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 혁명, 빵 혁명, 평화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혁명, 경제 혁명, 복지 혁명, 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며 후보자의 정책·인사 검증과 전혀 상관없는 막말·망언이자 철 지

난 색깔론을 버젓이 꺼내 들었음.

또한, 제22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관을 의심하는 발언과 함께 “종북좌파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현재가 왔다.”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역대 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막말을 하였음. 이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을 모욕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유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망언임.

이에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고, 국회의원(강선영) 제명을 촉구함.

제안이유

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영은 2024년 9월 2일 월요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김용현의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평화혁명론’ 책의 표지를 손패널로 들며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 혁명, 빵 혁명,

평화 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혁명, 경제 혁명, 복지 혁명, 평화 혁명과 유사한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라며 후보자의 정책·인사 검증과 전혀 상관없는 막말·망언이자 철 지난 색깔론을 버젓이 꺼내 들었음.

이는 국회의원의 명예를 단순히 훼손한 것을 넘어서 동료 국회의원을 상대로 중북좌파의 프레임을 덧씌워 매도함으로써 정치 활동을 훼방하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을 방해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는 악의적인 언행임.

나. 또한, 제22대 국회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습니다. 그중에는 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계셨고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계셨고 현재 계신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분들의 정책에 대해서 정치적 생각은 없었지만 그분들이 계실 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군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얼마나 북한이 주적이라는 생각에 대해서 흔들렸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북한을 주적이라고 인정하는 가운데 필요한 존재고 그것에 대해서 흔들게 하는 정권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많은 정부에서 정말 신분이 명확하지도 않은 중북 좌파들이 국가기관에 많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현재가 왔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정치 극단주의적인

막말을 하였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북 좌파’와 같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대통령과 정부를 부정하는 것임.

다. 민주적 시장경제 실현, 정치적 다원주의 지향,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단호히 맞서는 정당, 보편적 복지국가 건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정보추구권 보장 등을 가치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레닌에 비유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250만 당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선출한 유권자를 모독하는 것임.

또한, 국민이 선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모독하는 망언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등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회의원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결임.

라.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 ‘강제노역’ 삭제, 서울 역사 내 독도 조형물 철거 등 독도 지우기, 윤석열 정부 내 친일뉴라이트 인사들의 요직 차지,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발언한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인식에서 드러난 정부의 역사관 등 친일굴종외교와 친일매국, 친일역사왜곡 등으로 국민적 분노와 질타에 직면하자 제1당의 당대표 및 전직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색깔론을

통해 국민 비판의 화살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념 갈등을 부추겨 국민분열을 야기시키려는 정략적인 의도를 가진 책동임.

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민과 야당을 대상으로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시도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당정갈등, 의정갈등으로 심화된 보수층의 분열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 지지율을 모면하기 위한 반역사적, 반시대적, 반헌법적 행위임.

바.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의 의무를 저버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강선영의 발언은 대한민국 국회의 명예와 품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윤리의식을 의심케 하는 행위임.

이러한 행태를 종합할 때, 국회의원 강선영은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24조와 제25조를 현저히 위반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뿐 아니라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음.

이에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권위를 회복하고, 대한

민국 국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철 지난 색깔론을 뿌리 뽑고 매카시즘적 이념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강선영의 제명을 강력히 촉구함.